

## 키편치실의 추억



유 병 배

**필**자가 컴퓨터를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청바지와 통키타로 대표되는 1970년 중반의 일이었다. 오로지 주판알 통기는 것을 최고로 알던 시절이니, 識者층에서도 컴퓨터를 입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문 시절이었다. 67년이던가에 지금의 시스템공학연구소(SERI) 전신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내에 전자계산실이 창설되면서 처음 도입되었던 대형컴퓨터가 대기업에도 막 도입되고 있을 때였다.

---

약력 : • 76~79 대한항공 시스템부 • 79~86 선진엔지니어링 전산실 • 86~90 건설공제조합 전산부 • 91~96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이사 • 96~99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 소장 • 현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본부장

학교와 군대를 마치고 사회 진출을 모색하고 있던 어느날, 신문에 지금도 골지를 달리는 모대기업의 취업공고가 붙었는데 하필이면, 전산직을 모집한다고 했다. 당시엔 컴퓨터나 전산을 가르치는 학과는 없었다. 하지만 어디선가 컴퓨터시대의 도래에 대해 들은바가 있던 필자는 이미 학부시절에 FORTRAN을 수강한 경험이 있었고 호기심도 있어서 속는셈 치고 입사시험에 응시했다.

가르치는 곳이 없으니 전공제한도 있을 리 없고, 화려한 포트란 前歷 덕인지 덜컥 붙어버렸다. 첫출근을 해보니, 입사동기들의 학교전공은 천문기상학과, 신문방송학과, 철학과 등 그야말로 十人十色이었다. 당시에도 취업 잘 되는 학과는 있었던 지라, 전공 제한이 없다는 말에 취업에 불리한 학과 졸업생들이 대거 몰려 들었던 것이다. 당시 필자의 학부전공은 사람이 없어 야단인 과였으니 필자도 며칠밤 고민 깨나 해야했다.

하지만 이왕 들어온 길, 컴퓨터를 제대로 배워 봐야겠다는 생각에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이 필자가 20여년의 세월을 컴퓨터와 함께 살아온 시작이었고, 다시 생각해봐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역시 이 유있는 명언이라는 생각이 든다.

입사후 5개월간 컴퓨터기초에서 실무개발까지 회사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데, 이게 완전히 스파르타식이었다. 매주 배운 것을 시험보고, 인사고과에 반영하니, 입사초기부터 우리 동기들은 완전히 파김치가 됐다.

입사동기중 학부에서 철학을 전공했던 동기 ○군은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들나면서 매일 한숨을 푹푹 쉬더니만, 결국 퇴사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우수한 언론사에서 매서운 필봉을 휘두르는 걸 보면, 사람은 다 자기 길이 있는가 보다. 교육 이수후 본사로 발령이 났는데, 당시에는 프로그램을 코딩하여 키편치실에서 카드를 편칭하고 대형컴퓨터가 설치된 기계실 접수창구에 카드를 맡긴 후 시간이 되면, 리포트를 찾아 에러를 디버깅한 후 다시 카드를 맡기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접수와 리포트를 찾기 위해 다리뎀 파는 일이 당연했지만, 인터넷이나 객체지향프로그램이 보편화된 요즘 시각에서 생각하면, 정말 비능률의 극치를 달렸던 것 같다.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카드편칭작업을 하려면, 키편치실에 의뢰를 해야했는데 키편치실에는 여직원이 50여명 근무하고 있었다. 신입 딱지를 벗기 전 어느날, 카드편칭을 맡기려고 키편치실에 들렀는데, 갑자기 인상이 약간 고약한 어떤 여직원이 관심이라고 하기에는 시비성이 농후한 말들을 걸어왔다. 나중에 알고보니 다른 동료직원들도 무안을 많이 당했다고 하는데, 그 때나 지금이나 여직원들은 신입사원에 관심이 무척 많은 모양이다. 키편치실 신고! 어쨌든, 입사시험 다음에 거쳐야 하는 하나의 통과예식이었던 셈이다.

가끔 프로그래머로 코피 나게 일하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 있을 키편치실의 말같은 아가씨들이 생각난다. 지금은 들을 수 없는 퐁퐁거리는 천공기 소리와 함께 말이다.